



오늘의 날씨와 생활

12월 19일 목요일 음 11월 23일 (조금)

기상정보

흐림



제주도는 흐리고 쌀쌀한 날씨가 예상된다. 아침 기온은 6~7℃, 낮 최고 기온은 8~12℃가 되겠고...

Table with 3 columns: 오전, 강수 확률, 오후. Rows show percentages for Jeju, Seosan, Goseong, and Seogwi.

Table with 2 columns: 해돋이, 해질. Rows show times for sunrise, sunset, moonrise, and moonset.

Table with 2 columns: 내일, 모레. Rows show weather icons and temperatures for the next two days.

Table with 2 columns: 식중독지수, 감기가능지수. Rows show '주의' and '높음' levels.

월드뉴스

'노재팬'... 日자동차 韓수출 88.5% 급감

전체 수출액은 소폭 증가세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규제 여파로 불거진 '노재팬'의 영향으로 지난달 일본 자동차의 한국 수출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재무성이 18일 발표한 11월 무역통계(속보치)에 따르면 일본의 한국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7% 감소한 3896억엔(약 4조1426억원)을 기록했다.

품목별로 보면 자동차 수출액은 15억6200만엔(약 166억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88.5%나 급감했다. 자동차 수출 감소폭은 10월 70.7% 줄어든 것에 비해 더욱 컸다.

자동차 중에서도 승용차는 89.1% 급감한 데 비해 버스나 트럭은 61.5% 감소했다.

맥주가 포함된 식료품 수출액은 29억800만엔(약 309억원)으로 전년



'노재팬' 불매운동 현수막.

대비 48.7% 감소했다. 식료품 수출 감소세는 10월 58.1% 급감한 것에 비해서는 둔화했다.

일본의 월별 한국 수출액을 보면 6월 4611억엔, 7월 4360억엔, 8월 4226억엔, 9월 4027억엔, 10월 3818억엔으로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꾸준히 감소하다가 지난달 5개월 만에 소폭 증가세로 돌아섰다.

전년 동기 대비로 봐도 10월 23.1% 감소와 비교해 지난달에는 17% 줄어드는 데 그쳐 감소세가 둔화했다.

한편, 일본의 11월 무역수지는 2개월 만에 적자로 돌아섰다. 연합뉴스

한리일보 logo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website, phone, and address.

한라시론



성주엽 생각하는 정원

나무는 가지의 맨 끝부분에 생장점이 있는데 이곳에서 세포가 분열하고 새로운 세포가 확장되면서 나무는 키를 키우게 됩니다. 나무는 생장점을 절단해도 죽지 않고 성장에너지 생장점 근처로 옮겨서 새가지가 돋아나게 합니다.

절단되는 상처는 고통을 동반합니다. 상처와 고통은 절박함으로 분열

나무를 잘 기르는 사람은

해 분노, 집념, 인내, 열정이라는 성장에너지를 끌어올리게 합니다. 가장 쉽고 모든 것이 드러나는 겨울철이 전정의 적기입니다. 대부분의 낙엽수들은 겨울에 전정을 합니다.

"나무를 잘 기르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하고 물어보면 나무를 사랑하는 사람, 나무를 보호해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질문에 대해 나무를 잘 기르는 사람은 나무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아니고 나무를 잘 잘라주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산림에 관한 용어 가운데 '무육(無育)'이란 단어를 본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단순히 물이나 비료를 주면서 정성껏 키우는 것으로만 생각했었죠. 그런데 그 후 삼림 현장을 직접 참관할 기회가 있어 알게 된 것인데, 원래 그 의미는 '도끼나 칼 따위로 자른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나무는 원줄기만 남기고 겹가지는 황량하고 잔혹하다 할 정도로 쳐버렸더군요. 그때 기술자가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만일 이처럼 잔혹한 마음을 쓰지 않으면 성장도 느릴뿐더러 목재로도 쓸 수 없습니다. 뿔나무 감 외에는 아무 곳에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관찰하며 가위와 톱을 들고 나무를 다듬는 아버지를 30년간 바라보았습니다. 나무들도

자신의 일부가 잘려나가는 아픔을 겪었지만 지금 훌륭하게 자리하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많은 영감을 받게 됩니다. 국가도 조직의 경영도 마찬가지로 각 분야의 가리워져 있는 허물을 들어내고 진실을 직시하고 가위와 칼을 가지고 나무들을 전정하듯이 병들고 썩은 가지, 묵은 가지, 불필요한 가지들을 잘라주면 나무에 자극이 돼 새로운 생명력을 일으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강력한 의지로 싸우고 추구하고 발견하고 결코 굴복하지 않는다는 알프레드 테니스의 시구절을 나무에게서 배웠습니다. 나무와 정원에서 문학과 예술, 경영과 정치의 이치를 보게 됩니다. 모든 것이 일맥상통한다는 것이 어떤 이야기 같습니까. 정원정소부도 정원의 진실을 바라보며 전정할 곳을 찾아봅니다.

열린마당

여성이 더 안전하고 편안한 도시 만들어야



하창현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상임기획팀장

양성평등기본법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정책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고, 여성의 역량강화, 돌봄 및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는 지역(여성친화도시)을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사실 이 규정이 있기 이전부터 도시계획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자인 여성,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을 배려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가 계속 있어 왔다.

여성은 자신의 경제활동뿐만 아니라 가정과 아이 돌봄이나 보육 등 남성에게 비해 더 많고 복잡한 일을 해야 한다. 따라서 그러한 여성을 고려한 도시계획, 즉 도시공간구조가 필요한 것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자가용 이용

학생들 꿈의 발판이 되는 'JDC 꿈꾸는 학교'



지수민 노형중학교 1학년

올해 노형중학교는 JDC의 후원을 받아 '플라마를 꿈꾸는 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꿈꾸는 학교를 통해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됐는데 '행운을 드립니다' 프로그램을 통해 진로특강은 물론 오설록에 가서 직접 차문화 체험도 해보고 감동적이었던 뮤지컬까지 볼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져 정말 기뻐다.

JDC 꿈꾸는 학교의 가장 큰 장점은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차문화 체험을 하기 전 대기하며 화면에 나오는 '세한도'를 봤다. 한문 선생님께서는 이 그림을 그린 추사 김정희의 친구 이상적이 김정희에게 책을 갖다 주었다는 이야기를 해주시고 과학, 국어 선생님

께서는 소나무에도 꽃이 핀다며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 해주셨다. 선생님들과 '세한도'를 보며 한 이야기들이 내가 몰랐던 상식들을 일깨워 주어서 좋았고 선생님들과 화기애애하게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어서 좋았다. 또한 차문화 체험을 통해 옆에 있는 친구에게 차를 따라주는 실습이 있었는데, 서로가 우린 차를 맛보고 조그마한 디저트를 먹으며 선생님들과 학생들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아트센터에서는 뮤지컬을 관람했다. 기대를 많이 해서 그런지 시작하기 전부터 흥분을 가라앉힐 수가 없었다. 정선이 뮤지컬 배우의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을 받았다. 마지막에 뮤지컬 배우와 관객들 모두가 같이 노래를 하는 시간이 특히 즐거웠고 나도 모르게 박수갈채가 나왔다.

차문화 체험과 뮤지컬을 보면서 진로에 대해 생각해볼게 됐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JDC 꿈꾸는 학교와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더 많아져 학생들이 바쁜 하루 속 진정한 여유를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오피니언' 면의 외부필자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Large advertisement for 'Hyeomso Maru' featuring Naver logo, '2020년 해돋이는 고이오름에서' text, menu items like 'Hyeomso Tang / Jeongol', and contact information for Seogwi-si Namwon-dong.